



스리랑카, 폐플라스틱 프로젝트 투자 유통개혁 목적

스리랑카가 환경폐기물 처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계 기업이 스리랑카사와 합작해 스리랑카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이를 가공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스리랑카 Viridis사와 영국의 InXcess사가 합작한 벤처기업으로 폐플라스틱인 PET, PP, HDPE를 가공해 가치있는 재생원료로 변모시켜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센터를 지역별로 세워 영세 고물수집상들이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하며 고체 폐기물과 같이 유기분해가 되지 않은 쓰레기 배출을 축소코자 하는 스리랑카 정

부의 환경처리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전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생수, 음료수, 식용유병 등과 같은 플라스틱 병을 수거해 원료로 재생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에이전트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회사는 수집된 병을 호마가마 산업지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 분류한 후 태국에서 수입된 최신 기계로 파쇄할 계획이다. 파쇄된 플라스틱은 주로 의류 어깨에 넣는 패드나 자전거 좌석 및 자동차 산업의 원자재로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로 1백% 수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한 학생들이 폐병을 수집해 학교로 제출하면 학교에서 지방의 수집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도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폐품 환

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산교육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장견학으로 인해 수집된 폐병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보여주고자 한다. 이 회사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으며 재처리 과정에서 오염된 폐수가 나오지만 폐수 재처리시설을 갖춰 스리랑카 투자청과 환경청의 기준에 맞게 재처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고성장률 기록 제조설비 수요 동시 증가

베트남 정부가 플라스틱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플라스틱산업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플라스틱산업은 연성장률이 25~30%에 달하는 베트남의 주요 전략산업 중 하나이다.

생산제품을 살펴보면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육실용품, 위생용품, 플라스틱 병,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증가로 플라스틱 원료, 기계 및 몰드를 포함한 제조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몰드는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현지 제조 플라스틱 가정용품은 베트남 가정에서 선호되는 품목으로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가정용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현지 생산 제품의 품질이 수입품의 품질과 비교해도 양호할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여 대다수 가정에서 구매 가능하다.

비록 베트남 제조업체들이 주방용, 육실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동 제품류의 수입품이 아직 현지시장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품은 주로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태국산 및 중국산 제품은 한국이나 일본산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잘 팔리고 있다. 한국산 플라스틱 제품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베트남 관세청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의 연간 플라스틱 제조량은 1995년 28만톤에서 2003년 1백45만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도 1995년 3.8kg에서 2003년도 18kg으로 증가했다. 최근 플라스틱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많은 생산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베트남에는 약 2백50여개의 플라스틱용품 제조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 업체들은 합작회사, 국영기업 및 민간 회사의 공장들이다. 가정용품(컵, 접시, 그릇, 싱크대 등), 가정용 가구(플라스틱 테이블, 의자 등)를 제조하는 몰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디자인은 보통이며 소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멕시코, 포장산업 엑스포 개최 식품 포장기계전 통합으로 규모 확대

멕시코는 지난 6월 21일~24일까지 포장산업 엑스포(EXPO PACK, <http://www.expopack.com.mx>)를 개최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이 전시회는 멕시코 및 중미지역에서 가장 큰 포장산업 전시회이자 국제적인 포장산업 전시회로 자리잡고 있



다. 총 전시업체 5백55개사, 전시면적 2만5000 m²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전시회이며, 외국업체의 경우 총 17개국에서 2백26개사가 참가했다. 참가국으로 독일,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페루, 스위스, 대만,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전시품목은 각종 포장기계 및 기기가 주를 이뤘다.

또한, 이 전시회는 멕시코 플라스틱산업 전시회 (Plastimagen) 등 대규모 전시회를 주로 기획하는 전문전시업체 OPREX와 북미지역 포장기계 제조 연구소(PMMI)가 함께 주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시 운영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참가업체 중 97%가 올해에도 다시 전시회에 참가해, 전반적으로 전시회 참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시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 바이어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벨리세, 니카라과,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우루과이 등 중남미 각국 바이어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관객 중 24%가 종업원 2백명 이상의 규모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의 57%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포장 기계 및 장비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실구매 가능한 바이어들이 다수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별도로 이뤄지던 식품 포장용기계 전시회 (PROCESA)가 합쳐지면서, 냉장, 냉동식품, 과일, 야채, 음료, 유제품 등 각종 식품포장용 기계 및 장비 업체도 대거 참가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멕시코의 실시간 체크 전 자상품코드(EPC) 이용 현황 및 활용방안, 첨단 포장기술 등 관련 세미나도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인기를 끈 제품으로 미국 Diagraph ITW사의 LINX 6800 Swift 제품을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제품 형태 및 크기에 상관없이 고속으로 라벨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에 편리한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회사는 각종 라벨링 관련 제품을 선보였으며, 멕시코 시티, 치와와, 시우닷 후아레스, 할리스코, 몬테레이 등 전국 각지에 지점 및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외에 블리스터(BLISTER) 포장 시스템인 미국 Pack Kleen사의 O-K-PACK이 인기를 끌었는데, 플라스틱이나 마분지를 이용해 구멍을 뚫지 않고 접착식으로 포장하며, 가열포장이 아닌 상온포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시회를 통해 나타난 포장 기계의 주요 동향으로는 전 공정의 자동화를 들 수 있다. 매년 더욱 신속한 성능의 대량 포장이 가능한 기계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중시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 포장산업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멕시코, 물류엑스포 개최
4백개 전시업체 참가

지난 달 5일~7일 멕시코시티 BANAMEX 전시장에서 멕시코 물류엑스포 (EXPO

LOGISTICA 2005)가 개최됐다.

이 전시회에는 물류 및 해운회사, 통관회사 등 물류관련 서비스 회사 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다양한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창고 및 물류용 각종 장비들도 다수 전시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물류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창고용 선반, 팔레트, 핸드 팔레트 트럭, 카트, 소형지게차 등 각종 운반기구제품, 대형운송차량, 운반용 밴드 등 물류산업관련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 4백개사가 전시업체로 참가했으며, 전시회 기간 3일동안 방문객수가 1만4천명을 기록, 성황리에 전시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시회의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물류 34%, 창고관리 11%, 해운 및 운송 10% 등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방문하고 있으며, 제품 디스트리뷰터도 16%를 차지했다.

이 전시회에서 인기를 끈 제품으로는 Zebra Technologies의 무선 프린터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VPNS 지원, Wi-Fi 연결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무선시스템이다. 그 외에 KNAPP사에서 선보인 소프트웨어 기반 MPS 시스템이 눈에 띄었다. 동 시스템은 반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다양한 지역에 자동 주문 전송이 가능하며, 긴급 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전반적으로 제품 재고 및 주문 관리 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기능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 전시회에 참가한 외국기업들은 미국, 브라질, 스페인, 중국, 독일, 프랑스, 인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이며, 물류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은 미국산이 주를 이뤘다.

비록 이 전시회에 물류 및 운송관련 서비스회사 참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지만, 관련 제품 전시업체들은 이 전시회에 관련 바이어들의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일반 전시회 참가 때보다 훨씬 효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창고용 기구 및 장비, 소형지게차 등 각종 운반기구 등 물류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게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기회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獨,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 증가 전망 바이오 포장재료 제조업계 진출 호기

독일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급증이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포장법령의 개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각종 포장 용기류 생산업자, 유통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들은 확대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이들이 생산 판매한 포장 및 용기류 등을 회수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국의 포장쓰레기의 수거 분류 재활용 작업을 맡아 진행하는 듀얼시스템 도이체란트(Duales System Deutschland:DSD)는 이들 업체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를 처리해줬다.

DSD는 처리비를 지불한 기업에 왼쪽의 'Grüne Punkt' 인증표를 발급한다. 이 인증표가 붙은 포장 쓰레기는 노란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되며, 듀얼시스템이 포장 생산업자, 유통업자



및 소재 생산업자들의 확대생산자책임 의무를 대신해 쓰레기를 처리했다.

올 6월초부터 적용되는 신규 포장법령에 따르면 포장 용기류 생산업자, 유통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들이 만약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 소재를 사용할 경우 'Grüne Punkt'를 위한 처리비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쓰레기통(밤색) 또는 일반 쓰레기통(회색)에 추가 비용 지불 없이도 버려질 수 있다.

지금까지 바이오 플라스틱의 단점은 바이오 포장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기존 플라스틱 포장 원자재가격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비 가능한 포장소재, 즉 생분해성 포장재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Grüne Punkt 처리비용이 삭감되면서 높은 원자재가격 문제가 해결됐다.

독일 생분해성 재료 관련 협회인 IBAW (Interessengemeinschaft Biologisch Abbaubare Werkstoffe)는 독일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향후 업체들의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 협회는 내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수요증가를 전망했는데, 특히 독일 식품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유럽 몇 개 국가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가 식품포장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어 독일 시장 도입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독일에서 지금까지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동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외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독일 신규 포장법령에 따른 향후 독일 식품포장시장의 바이오 포장재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독일 시장 진출을 시도하기에 절호의 시점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이 독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요구되는 인증마크 획득이 필수적이다.

관련협회(IBAW)의 엄격한 지침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상품에 대해 'Kompostierbarkeitszeichen (퇴비성 인증)'이라는 표준 인증마크를 개발했으며, 독일 베를린 소재의 DIN CERTCO에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DIN CERTCO는 독일 규격협회(DIN)의 인증 발행기관이다. 이 마크는 현재 유럽에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그리고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중 한 국가에서만 인증마크를 발급 받으면 나머지 국가에서 별도로 인증마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외국기업 중 독일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업체는 호주의 Plantic Technologies 사로 나타났다. 동 기업은 옥수수 녹말을 이용한 생물 분해가 가능한 폴리락티드 소재를 생산하며, 이 소재는 주로 사탕 포장에 사용되고 있다.

동 사는 이미 지난해에 영국 캠브리지(Cambridge), 네덜란드의 로터담(Rotterdam)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 각각 사무실을 설립해 각 지역의 식품제조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 진출한 독일 디스카운터 Aldi Sued는 호주에서 동 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 회사는 이와 같은 사업관계가 독일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